

변두리에서 사랑의 꽃을 피운 김범일 목사

손 주 완(목사, 강원 원주 작은예수공동체)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에 있는 삼광 침례교회를 17년 넘게 목회하고 계시는 김 범일 목사님을 찾아갔다. 김 범일 목사는 1983년 당시 44세의 나이로 교회가 없던 이 농촌 지역에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분이다. 김 범일 목사가 농촌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는 그가 평소 존경하던 장 기려 박사가 번역한 『다미안 신부』를 읽으면서 생겼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봉사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욕구로 자신이 속한 교단의 지원을 받지 않고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가족을 떠나서 오지에서 홀로 목회를 시작하였다.

김 범일 목사의 목회적 방향은 철저하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지역의 교회’이다. 개척지를 선택할 때의 기준도 자신과 연고가 없는 곳,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곳, 소외된 곳으로 정했다. 그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가 필요했다. 그래서 마을의 관혼상제를 빠짐없이 찾아가서 인사하고 부

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병든 환자는 무조건 찾아가서 위로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지역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삼광교회는 주민의 교회입니다.” 또는 “교회는 여러분의 기관입니다.”라는 말을 자주하여 지역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교회에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였다.

삼광 침례교회의 지역사회목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료 진료활동, 사랑방교실, 젓소사육사업, 양계사업, 신용협동조합, 영생의 집, 공동목욕탕, 무공해농산물생산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교회 개척초기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 후에도 한의사인 동생의 도움을 얻어 한방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더 나아가 정읍에 있는 병원의 협력을 받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주는 교회’로써의 삼광교회를 만들어 나갔다. 또한 문맹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보고 부를 수 있는 교인들로 양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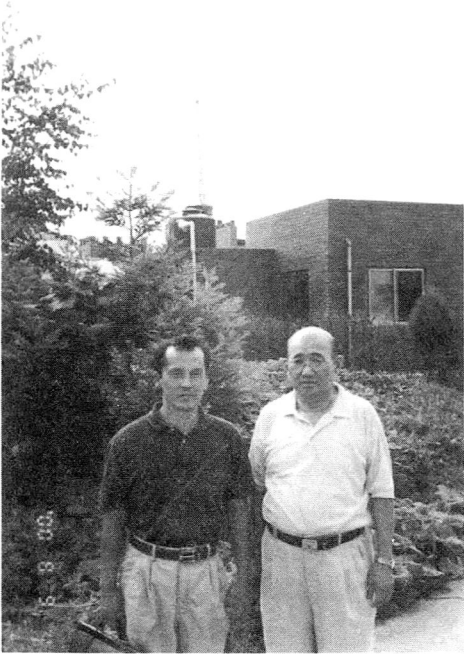
교회 뒷편으로 마련된 농장전경

농촌주민이 도시로 떠나는 주된 이유는 역시 생계 문제였다. 마을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차츰 도시로 빠져나가기 시작하

였다. 결국 농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터를 잡고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필요했다. 중학생들을 설득하여 농업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고향에 정착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래서 하게된 사업이 젓소 사육이었다. 예배당 뒷 편에 축사를 마련하여 송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으나 2년 후 결국 도시로 떠난 청년들 때문에 농촌후계자 양성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교인들에게 한 마리씩 분양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젓소사육을 추진한 결과 교인들의 가정에서 소득이 증대되고 그것이 헌금으로 이어져 결국 교회가 자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젓소 사업을 통해 경험을 쌓은 김목사는 무공해 양계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35가정에서 월 60-70만원의 농가소득을 얻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판매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다. 이러한 양계사업은 자연스럽게 신용협동조합사업으로 이어졌다. 현재 신용협은 조합원 1,200명에 자본금 38억으로 놀랍게 성장하였다.

김 범일 목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으로 무의탁 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들이 함께 사는 '영생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27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학비부터 장례까지' 김 목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간증하였다.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약간의 반대와 항의를 하였으나 고창 군수의 표창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이 잠잠하게 되었다. 지금은 영생의 집 식구들이 이용하는 공동목욕탕은 원래 목욕을 자주 하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교회 뒷 편에 만든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하나 되는 교회로써 삼광교회를 섬기고 있다.

농촌교회 목회자로 17년이 넘게 목회하신 목사님은 이제 60세를 넘어 인생의 완숙기에 접어든 모습이었다. 농촌목회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뼈를 묻는 각오로 장기적인 목회를 해 온 것이다. 2-3년 마다 바뀌는 농촌목회자들의 행태를 꼬집으시며 "과연 목회자가 주님을 위해 떠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떠나는가?"를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농촌교회



김범일 목사님과 함께

교인들의 상처는 대부분 목회자 때문이며 그러기에 목회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김 범일 목사의 목회철학은 ‘주는 목회’이다. 목회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니라 동네의 것이다. 목회자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잠시 머물다 가는 그래서 농촌을 이용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소외당하고

외롭고 힘든 농촌 사람들과 삶의 수준을 같이하며 함께 사는 것이 목회다. 이것이 이 땅의 변두리에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사랑의 꽃을 피운 김 범일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 온 결론이다.